

2026 제1차 학사팀 간담회

일시 : 2026.06.16.(화) 14:00

장소 : 믿음관 2층 회의실

0. 성원점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정채린
총학생회 교육국 국장	남민혁
총학생회 교육국 국원	이하늘
학사팀 팀장	남호인
학사팀 계장	조승주
학사팀 팀원	이경민

I. 안건 논의

1) 수강신청 장바구니 운영 기간 연장

- ▶ 총학생회: 현재 1일로 운영 중인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간을 최소 2~3일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 장바구니 운영 시간 확대 방안도 함께 제안함.
- ▶ 학사팀: 시스템상으로는 장바구니 기간 확대 및 운영이 가능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함. 다만 1학기는 입학, 졸업, 오리엔테이션 등 주요 학사일정과 연계되어 있어 장바구니 운영 기간 확대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함. 또한 운영 시간 확대 역시 직원 근무시간 및 운영 인력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함. 해당 사안은 학사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행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2학기 적용 여부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다만 장바구니 운영 기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내부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 후 추후 안내하기로 함.
- ▶ 총학생회: 예비수강신청 운영 시간을 기존 16시보다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학사팀: 예비수강신청 운영 시간 확대와 관련하여,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경우 관련 부서의 상시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운영 중 시스템 오류나 이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7시 30분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2) 강좌 증설 및 분반 조정

- ▶ 총학생회: 전공 및 교양과목의 수강 경쟁 완화를 위해 강좌 증설 및 분반 확대를 요청함.
- ▶ 학사팀: 전공과목의 경우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분반 수를 적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오히려 여유 있게 분반을 개설하는 편이나, 복학·휴학·다전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재학생 수가 매 학기 변동되어 일부 과목에서 수강 인원이 부족하거나 수강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전공과목의 경우 수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학과를 통해 수강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전공과목의 수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학과에서 학사팀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원 확대 및 증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교양과목 운영 및 추가 개설

- 기초교양 및 교양과목의 분반 운영과 강좌 개설은 교양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항으로, 학사팀에서 직접 편성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설명함. 다만 이번 학기 교양과목의 수강 가능한 과목이 부족했던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교양 담당 부서에서도 추가 강좌 개설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총학생회에서는 2학기 수강신청 이후에도 학생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제안함.

■ 일반교양 강좌 운영 방향

- 학사팀은 일반교양의 경우 학생 선호도만을 기준으로 강좌를 추가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교원 수급과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일부 인기 강좌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양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대학의 역할인 만큼, 단순 수요만을 기준으로 강좌를 증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3) 수강신청 및 학사시스템 서버 안정화

■ 수강신청 및 학사시스템 서버 안정화 요청

- 총학생회는 수강신청 및 학사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버 오류와 접속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 학사팀은 총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서버 안정화 및 수강신청 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학사팀은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서버 과부화 이후 정보화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버 사전 점검 강화 및 데이터 정비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그 결과 2025학년도 2학기 및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는 서버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과거보다 서버 안정성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다고 설명함. 다만 일부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타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답변함.
- ▶ 총학생회: 수강신청 뿐 아니라 수업평가 및 성적조회 기간에도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달함.
- ▶ 학사팀: 성적조회 시기에 학생들이 수업종합평가와 성적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스템 체류시간이 증가해 서버 부하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함. 이에 따라 정보화센터와 협의하여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조회 시스템에도 넷퍼널을 도입해 동시 접속 인원을 분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버 과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향후에도 정보화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 총학생회: 수업평가와 성적확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함.
- ▶ 학사팀: 해당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바 있으나, 수업평가 참여율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어 현재는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함. 다만 향후 필요 시 수업종합평가 기간과 성적조회 기간을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수업평가 참여율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4) 성적평가(A등급 비율) 관련 건의

■ A등급 비율 확대 건의

- ▶ 총학생회: 일부 과목의 A 등급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A 등급 비율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질의함.
- ▶ 학사팀: 타 대학의 성적평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본교는 과목 특성에 따라 성적평가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실습과목은 A 등급 비율을 40%, 혁신교육 방식 및 일부 교양과목은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등 A 등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절대평가 확대와 관련하여 타 대학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학별 여건과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성적의 변별력과 평가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 더불어 A 등급 비율 확대는 학업 성취도 변별력과 교수진의 평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총학생회에서 제기한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론과목의 A 등급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5) 외국인 학생 관련 교육환경 개선 건의

■ 외국인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 ▶ 총학생회: 외국인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수업 환경 변화와 학습 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함. 특히, 일부 수업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업 집중도, 조별 활동, 수업 참여 태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함.
- ▶ 학사팀: 성적평가 시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어 학점 산출 측면에서 재학생들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와 학습 분위기 문제는 학사팀도 인지하고 있으며, 재학생과 교수진으로부터 관련 의견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답변함.
- ▶ 총학생회: 외국인 학생 수를 제한하거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 학사팀: 해당 방안은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 총학생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분반을 개설하거나 외국인 전용 과목 수 확대 제안함.
- ▶ 학사팀: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별도 분반 운영은 형평성, 수요, 강의 인력, 예산 등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함. 다만 외국인 학생 수 증가에 맞춰 1학기부터 외국인 전용 분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학과의 전공과목에서도 전용 분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향후에도 외국인 학생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전용 분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나, 구체적인 운영 규모는 수요와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아울러 내국인 학생들의 수업 환경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함.

II. 기타안건

■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 총학생회는 향후에도 학사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재학생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사팀과의 간담회 및 소통을 지속 시행 예정.
- 학사팀은 타 대학의 학사 운영 사례와 교육부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학사 운영 전반에 반영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총학생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강신청, 교육과정, 성적, 학적 등 학사 운영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 전달.

■ 학생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참여 활성화

- 학사팀은 학생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함. 다만 현재는 설문조사 참여 학생 수가 적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함.
- 총학생회에서는 향후 설문조사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폐회(15:10)